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은 자당몫 이사를 각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라!

● **일 시 : 2023. 12. 19.(화) 09:3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1. 북한은 어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동해로 시험발사했다. 액체 연료 주입 절차가 없어 기습발사가 가능해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이다. 올 2월(화성-15형), 3월(화성-17형)을 포함하면 올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역대 최다인 5차례다. 이렇게 주민에 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주민은 지금 아사사태가 속출하는 극심한 식량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2.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은 7년 넘게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자당 몫 후보 5명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작년 8월 자당 몫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일부장관은 작년 9월 자신 몫 2명을 추천했음).
2. 명백한 법률의 규정과 인류보편의 가치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행태는 현저히 국격을 떨어뜨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자당 몫 北인권재단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北인권재단이사로 추천할 것을 다시 엄중히 촉구한다!

2023. 12. 19.

사단법인 북한인권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 · 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시민모임(올인모) ·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